

#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1월 23일  
제1880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루카 4,18-19,21)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봉독하시는 예수님〉, 11세기, 채색 삽화, 바티칸 도서관, 바티칸

##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다해

**제 1 독서** 느헤 8,2-4 7.5-6.8-10 | 레위인들은 율법서를 설명하면서 읽어 주었다.

**화답송** 시편 19(18)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제 2 독서** 1코린 12,12-30 <또는 1코린 12,12-14.27> |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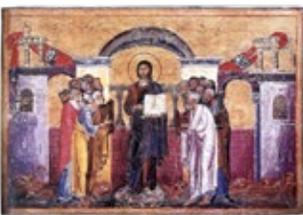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복음** 루카 1,1-4; 4,14-21 |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 <sup>1</sup>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 <sup>2</sup>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 <sup>3</sup> 존귀하신 테오�필로스 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sup>4</sup>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에 <sup>4:14</sup>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래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 <sup>15</sup>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 <sup>16</sup>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 <sup>17</sup>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 <sup>18</sup>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 <sup>19</sup>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 <sup>20</sup>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 <sup>21</sup>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 성화 해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는 예수님>

이 작품은 비잔틴 시대에 성경을 장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색 삽화이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서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봉독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해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셨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놀라워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

(정용모 신부, 복음을 담은 성화)

## 복음 묵상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은 뒤(느헤 2,17; 6,15 참조), 율법 학자이며 사제인 에즈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어 달라고 청합니다(느헤 8,1 참조). 에즈라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 주고 가르치며 설명합니다. 무너진 도시를 복구하는 외적인 작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는 내적인 작업이 더욱 중요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잘못을 뉘우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느헤미야 총독과 에즈라 사제와 레위인들은 “오늘은 …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라고 격려합니다.

나자렛 회당에서 또 다른 기쁨이 선포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이 성경 말씀은 “주님의 은혜로운 해”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약속일뿐만 아니라, 확실한 실재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안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이들, 잡혀간 이들, 눈먼 이들, 억압받는 이들’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천 년 전 나자렛 회당에서 선포된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오늘이 되고, 가난한 이들, 잡혀간 이들, 눈먼 이들, 억압받는 이들의 ‘오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 이루어졌다.”

## 하느님의 말씀 주일 - 매일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

프란치스코 교황은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선언하였다(2019년 9월 30일). 하느님 백성이 성경을 더욱더 경건하고 친숙하게 대하고, 하느님 말씀의 거행과 성찰과 전파를 위하여 이날을 봉헌하며 장엄하게 지내기를 권고한다.

“성찬례 거행에서 하느님 말씀이 갖는 규범적인 가치를 회중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성경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흠어짐이나 분열에서 일치로 넘어가는 주님 백성의 책임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신자들을 일치시키고 하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사목자들은 듣는 이에게 적합하고 쉬운 언어로 성경을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큰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 대부분에게 이번 기회는 하느님 말씀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각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거룩한 말씀에 대한 설명을 아무런 준비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잠시 멈출 때, (강론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도달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서나 연대기의 모음집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향해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 안에 포함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뿌리는 이러한 근원적인 목적, 곧 우리의 구원을 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성경의 본질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을 만나시고 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풀지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쓰여진 성경을 성령의 빛 안에서 읽을 때 항상 새로워집니다. 매일 하느님의 말씀으로 길러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과 동시대인이 됩니다.

하느님 말씀은 질식과 메마름으로 이끄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고 나눔과 연대의 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9년 9월 30일〉

###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여정 - 하느님의 말씀 주일 로고 -

로고에는 성경의 한 장면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여정(루카 24,13-35 참조)이 그려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장면입니다.

이 로고는 하느님의 말씀 주일의 여러 측면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인물이 보입니다.

‘경전 두루마리’, 곧 당신 안에서 실현된 성경을 손에 들고 계신 **그리스도(가운데)**와 **두 제자**가 있습니다.

루카의 분명한 기록대로 한 제자는 **클레오파스**이고, 일부 성경 주석가들에 따르면 다른 한 제자는 **그의 부인**입니다. 클레오파스는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순례의 표지**입니다. 그의 부인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는 듯합니다. 두 제자의 얼굴은 모두 주님을 향하고 있으며, 그들의 손은 각기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여인의



왼손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킵니다. 그분께서 구약의 완성이자 세상에 선포해야 할 살아 있는 말씀이심을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반면에 클레오파스의 왼손은, 제자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든 이에게 전하러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리킵니다. 제자 클레오파스 옆에 있는 **별**은 영원한 빛으로서 그들의 발길을 인도하고 미래로 이끌어 주는 **복음화의 표징**입니다. 동작의 역동성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발은 그들이 걷고 있음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려 파견되어 나아가는 여정에 있음을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려면, 지지지도 나태해지지도 않는 제자들, 성경을 교회 생활의 살아 있는 규범으로 만들어 주는 새로운 언어들**을 늘 찾아 나서는 역동적인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 2021년 성탄 제대 꽃 봉헌자

김기수 요한 가정, Pirerce 영미 안나 가정, 강금자 마리아 가정, 강세원 바오로 가정, 강수환 리차드 가정, 강승희 요한 가정,  
 강윤주 안드레아 가정, 고재현 세실리아 가정, 광금순 사비나 가정, 광노덕 도미니꼬 가정, 광재욱 로사 가정, 광젼마 가정,  
 권대보라 가정, 권앵선 마리아막달레나 가정, 권영수 론지노 가정, 권정미 안나 가정, 권태완 빈첸시오 가정, 김경숙 안나 가정,  
 김국 스테파노 가정, 김나연 실비아 가정, 김남식 안드레아 가정, 김남식 데이비드 가정, 김덕순 글라라 가정, 김동표 로므알도 가정,  
 김레지나 가정, 김명희 줄리아나 가정, 김문겸 미카엘 가정, 김병국 닷윗 가정, 김선미 데레사 가정, 김선미 카타리나 가정,  
 김소피아 가정, 김수자 세실리아 가정, 김순자 소화데레사 가정, 김승우 바오로 가정, 김애자 마리아 가정, 김영환 수잔나 가정,  
 김영희 모니카 가정, 김영희 아가다 가정, 김영희 아네스 가정, 김오단 리디아 가정, 김옥규 바오로 가정, 김옥순 아가다 가정,  
 완호 라오렌시오 가정, 김용국 가브리엘 가정, 김용은 켄마 가정, 김용희 라파엘 가정, 김우성 프란체스코 가정, 김윤희 안젤라 가정,  
 김은옥 마리아 가정, 김이경 카타리나 가정, 김인기 모세 가정, 김재인 안나 가정, 김점자 가브리엘라 가정, 김정자 글라시아 가정,  
 김정현 엘리자벳 가정, 김줄리 율리안나 가정, 김지자 가정, 김창호 요한비안네 가정, 김춘실 마리아 가정, 김형석 바오로 가정,  
 김형자 아그네스 가정, 김화자 안나 가정, 노시창 버나드 가정, 류익희 아오스팅 가정, 민인숙 데레사 가정, 민일성 베드로 가정,  
 박민규 유스티노 가정, 박상태 요한 가정, 박수미 미카엘라 가정, 박옥희 소화데레사 가정, 박우현 야고보 가정, 박유민 엘리아 가정,  
 박은미 마리스텔라 가정, 박인숙 데레사 가정, 박정수 수산나 가정, 박창우 토마스아퀴나스 가정, 박춘선 골롬바 가정,  
 박필립 프란체스코 가정, 배대륜 요한 가정, 배석범 알베르토 가정, 백경길 시몬 가정, 변시몬 가정, 서경원 마르티노 가정,  
 서경임 글라라 가정, 서민수 안젤라 가정, 서은경 헬렌 가정, 서정모 마티오 가정, 서효심 마리아 가정, 손범희 요한세례자 가정,  
 신경자 에디니아 가정, 신선희 바울리나 가정, 신총렬 세실리아 가정, 심혜영 루시아 가정, 안순상 요한 가정, 안종윤 베드로 가정,  
 양명암 안드레아 가정, 양방우 요한 가정, 양재인 베드로 가정, 오대환 시메온 가정, 오복미 도미질라 가정, 오승영 스테파노 가정,  
 오현규 빅토리아 가정, 용봉주 암브로시오 가정, 유시명 베드로 가정, 유옥분 보나 가정, 유용례 다니엘 가정, 유정렬 벨라벳다 가정,  
 윤영미 로사리아 가정, 윤옥영 그라시아 가정, 윤재원 베드로 가정, 이가연 카타리나 가정, 이경식 도로테아 가정, 이경자 헬렌 가정,  
 이광재 닷윗 가정, 이명자 벨라지아 가정, 이상길 필립 가정, 이상만 사무엘 가정, 이선자 로사 가정, 이선희 엘리자벳 가정,  
 이수호 미카엘 가정, 이순용 바오로 가정, 이스텔라 가정, 이승호 바오로 가정, 이아나다시아 가정, 이영자 켄마 가정,  
 이예식 클라라 가정, 이원석 요한세례자 가정, 이의성 가정, 이인표 윤일요한 가정, 이정렬 마리아 가정, 이정원 글라라 가정,  
 이정화 실비아 가정, 이진주 마르타 가정, 이태욱 루까 가정, 이현범 프란체스코 가정, 익명, 임달막 아가다 가정, 임영재 안드레아 가정,  
 장대용 사무엘 가족, 장영희 세실리아 가정, 장정숙 베로니카 가정, 장태원 요한 세례자 가정, 장효진 베로니카 가정,  
 전덕준 알렉시오 가정, 전병희 마리아 가정, 정우진 가정, 정정욱 로사 가정, 정형순 요세피나 가정, 조경구 루가 가정,  
 조다은 아네스 가정, 조성수 라우렌시오 가정, 조성희 엘리사벳 가정, 조영인 요셉 가정, 조영훈 안토니오 가정, 조정란 사비나 가정,  
 조현옥 안젤라 가정, 조혜원 글로리아 가정, 주광국 그레고리오 가정, 주흥식 도미니꼬 가정, 지수성 요한 가정, 천석기 바오로 가정,  
 최덕순 마리아 가정, 최원호 요셉 가정, 최정길 요셉 가정, 최정선 엘리사벳 가정, 최평란 데레사 가정, 최혜숙 수산나 가정, 편인자  
 제노베따 가정, 해주리 마리아 가정, 한경옥 로즈메리 가정, 한기근 안토니오 가정, 한데레사 가정, 한문성 토마스 가정, 한유스티노 가정,  
 홍성원 실베리오 가정, 홍세실리아 가정, 홍의훈 요셉 가정, 황영순 로사 가정, 황원균 알렉산더 가정, 황희진 안젤로 가정.

(총 179가정)



성탄 제대 꽃 봉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2022년 제대 봉헌초 신청자

강대성 요셉, 강명옥 마리아, 강윤주 안드레아, 강해리 엘리자벳, Mr. 풍, 풍은빈 요세피나, 풍우빈 가브리엘, 강승희 요한, 곽재욱 로사, 권선안 이나시오, 권경옥 데보라, 김경옥 엘리자벳, 김현희, 오선주 로사리오, 오예은, 김과언 토마스, 김보나보나, 김 김벌리, 김엘리사, 김에레, 김국태 요셉, 김카타리나, 김기수 요한, 김영애 골롬바, 김현 아네스, 김준 마이클, 김남식 안드레아, 김경숙 막달레나, 김덕영, 김기숙 로사, 김길자, 김성규, 김성태, 김동우, 김도형, 김만식 재권요셉 가정, 김문겸 미카엘, 구아름 데레사, 김보라 엘리자벳, 구재민 마이클, 구재원 아이젯, 김미셀, 김에스터, 김부환 루카, 김수현, 김경희 마리아프란체스카, 김병준, 김수연, 김상욱 안토니오, 김명애 안토니아, 김연준 안드레아, 김연우 글라라, 김순철 요한금구, 김영옥 실비아, 김유진, 김영덕 아오스팅, 엄재웅, 엄도현, 신준상, 김영수 그레고리오, 김민정 마르티나, 김영은, 김영채, 김옥임 에밀리아, 김영일 미카엘, 박향숙 요안나프란체스카, 김수현 안젤라, 김승겸 안드레아, 윤복녀, 박명재 요셉, 박정훈, 이귀혜, 박정옥, 임근교, 김정경, 김정화, 김홍민 베드로, 김영희 모니카, 최진미 클라우디아, 김제시 헬레나, 김명일 브루노, 김지아(채빈), 정진희 헬리나, 전재진 다니엘, 김용구 가브리엘, 김윤호, 김윤철, 김성순 아가다, 김인규 시몬, 김성규 베드로, 김신규 요한, 김앤지, 김Mila, 김Kai, 김형남 안드레아, 김정임 엘리자벳, 김일근 가정, 이경훈 가정, 김재우 아브라함, 김재형 마누엘, 김마리 마리아, 김동한 그레고리오, 김정자 그라시아, 김태윤 알렉산더 가정, 김피터 그레고리오, 김명희 울리아나, 김학경, 김세희 마리안나, 김옥주 울리안나, 김재호, 김태경, 현주 안젤라, 남해솔 안드레아, 노시창 버나드, 노명숙 베로니카, 민금선 마리아, 민일성 베드로, 민필순 멜라니아, 박기현 베드로, 박태늘 아네스, 박마리아, 박레지나, 박틸트 스테파노, 박상태 요한, 박세종 루시아, 박승구 요셉, 박승미 마리아, 나의선 안토니오, 박용걸 어거스틴, 박완다 브리짓다, 홍의훈 요셉, 홍미숙 아네스, 박용재 토마스, 박정자 루시아, 박상희, 박찬영, 박상진, 박우현 야고보, 박귀순 아네스, 박중근 바오로, 박은순 세실리아, 박혜진 소화데레사, 박철우 존, 박현우 야고보, 박춘선 골롬바, 리차드, 김지훈 글라라, 박혜선 아네스, 박혜윤 실비아, 박이선 유스티나, 박현태 안토니오, 박상희 로사, 박경훈 앤드류, 배석범 알베르토, 배경숙 엘리자벳, 배대윤 요한, 배대건 앤드류, 오현규 빅토리아, 배윤희 다니엘, 박유민 엘리아, 배시원 암브로시오, 배하늘 소피아, 박은성 프란치스코, 박나은 마리스텔라, 정맹금 데레사, 배성훈 티모테오, 김윤희 프란체스카, 배현식 아오스팅, 배현준 그레고리오, 배현승 토마스아퀴나스, 변윤구 시몬, 변충식 요한, 변애란 글라라, 서애선 엘리자벳, 서윤배 바오로, 서치숙 데레사, 서영훈 윌리엄, 서영준 스티븐, 서정모 마태오, 조형련 크리스티나, 김정환 미카엘 가정, 장용준 울리오 가정, 서영섭 안토니오 가정, 송내영 요안나, 송기섭 스테파노, 송정환 베네딕토, 송상희 토마스아퀴나스, 송프리실라, 송종덕 라파엘, 송명자 루시아, 신미카엘라, 신봉균 바실리오, 신현옥 마리아방지가, 신현미 대데레사, 신현준 빈첸시오, 신현상 이나시오, 옥제니 헬레나, 옥에드워드, 조재석 스테파노, 김의숙 마리아, 김미래 아네스, 신선희 바울리나, 박정혁 요한, 신태영 바오로, 유순아 쟈마, 신정민 니콜라오, 유춘자 데레사, 신현철, 신소피아, 안윤민 바실리오, 안은영 수산나, 안광훈 프란치스코, 안광준 라우렌시오, 안종윤 베드로, 안옥분 마리아 막달레나, 양명양 안드레아, 이승호 바오로, 이광재 닷윗, 양재인 베드로, 이민우 이삭, 양유빈 미카엘, 양문숙 아네스, 양창호, 양치모 존, 오금숙 세실리아, 임미정 엘리자벳, 임민정 줄리엣, 임수정 요세피나, 오성웅 토마스아퀴나스, 오승준 베드로 가정, 오요한 가정, 유근성 베드로, 윤민숙 데보라, 유다희 실비아, 마이크 우즈, 준수요한 우즈, 유승희 엘리자벳, 유소희 줄리아, 윤희숙 카타리나, 유승엽, 유승한 안드레아, 유승희, 유정렬 벨라멧다, 유제운 요셉, 유혜란 파이나, 유재환 요한, 윤봉근 도미니코, 윤영애 대데레사, 윤아원 플로라, 윤어진 마리스텔라, 은기권 루카, 은임순 로즈메리, 이광영, 이성진, 이귀옥 아타나시아, 이지훈 아우구스티노, 이규섭, 이도훈, 이정은, 이수명 클라우디아, 이규옥 아타나시오, 이규철 베드로, 이근애 마리아, 이숙진 데레사, 이종성 바오로, 이상남 베드로, 이판수 로사, Abran(leo) Gordon, Alex(john) Gordon, 김크리스티나, 서토마스, 서이삭, 서안셀모, 이석훈 라파엘, 이순규 엘비나, 이지애 미카엘라, 김수민 베드로, 김나은, 이병호 루카, 김수경 헬레나, 이지수 그레이스, 이수호 미카엘, 이순남 안드레아, 이영자 마리아, 이준하 바오로, 임진숙 아나다시아, 이사이먼 시몬, 이시은 사라, 이시을 데이빗, 송정부 베드로, 이향주 레피나, 송준우 데이빗, 송은교 마리스텔라, 이순애 사비나, 이창재 베네딕토, 이순용 바오로, 이경덕 안젤라, 이스텔라, 이종원 프란치스코, 이성원 알렉산더, 장금철 아나다시아, 하로사 가정, 하영래 요아킴 사제, 하영수 알베르토, 이승석 분도, 이정은 잔다르크, 이정화 실비아, 이영자 쟈마, 박옥희 소화데레사, 한경옥 로즈마리, 한문성 토마스아퀴나스, 박인숙 데레사, 박인숙 안젤라, 이예식 글라라, 김화자 안나, 김정자 가브리엘라, 김완호 라우렌시오, 이선희 엘리자벳, 심혜영 루시아, 이정렬 마리아, 한순옥 수산나, 한영옥 요한, 한만수 바오로, 이진주 마르타, 이재선 베드로, 크리스, 노아, 가브리엘라, 마이클 리, 리정훈 토마스, 리정주 아곱, 리정준 루카, 리세은 샬렛, 최필립, 서마이클, 서브라이언, 서필립, 정승민 요셉, 임용균 어거스틴, 임정자 데오도라, 임형준 이레네오, 임호준 안셀모, 이종석 루카, 이재경 글라라, 이준원 암브로시오, 이도원 예로니모, 이지원 노엘라, 이안열 쟈마노, 이인숙 크리스티나, 전재균 야고보, 전재윤 카타리나, 전지오 가브리엘, 전지아 미카엘라, 김지현 토마스아퀴나스, 김재은 아네스, 김래야 글라라, 이기호 십자가요한, 민정아 루시아, 이주민 소피아, 이아연 안나, 이소원 릴리안, 이시은 세라, 장내석 프란치스코, 김경숙 안나, 최선욱 스테파노, 김그레이스 헬레나, 전덕준 알렉시오, 전성희 헤드릭, 전지숙 베로니카, 전성식 고네타, 전호식, 이정숙 울리아나, 전재경 바실리오, 김재희, 전재영, 이윤진, 정수만 스테파노, 정희영 후리도리노, 조원준 안드레아, 정은자 로사, 정희복 야고보, 정도원 도미노, 정규원 다니엘, 정대호 마르코, 정훈 미카엘, 정준 가브리엘, 정로아, 조경구 루카, 조갑순 로사, 조혜원 글로리아, 매튜인수 하그레이브, 조대신 즈카르야, 이창순 엘리자벳, 조정연 베르다, 이희주 미카엘라, 지경수 요한, 지수경 요안나, 지현우 베네딕토, 지혜빈 베네딕타, 최상규 요셉, 최경숙 헬레나, 최한나 마리아, 최현우 요한, 최애나 안나, 천석기 바오로, 천윤숙 마리아, 최병근 다니엘, 최평란 데레사, 최승준 미카엘, 최정원 울리아나, 최소피아, 이베드로, 이말타, 이시몬, 이셀리나, 이시은 클로에, 김마르코, 이안나, 김다니, 김제시카, 남요한, 남경미 데레사, 남데이빗, 남야곱, 정재우 요한, 정보람 아네스, 정세람 쟈마, 박래리 로렌스, 박아람 세실리아, 박서울 리오, 최영준 라파엘, 최준애 울리아나, 최준영 안드레아, 최민영 저스틴, 최한영 피터, 최철이 프란치스코, 최향숙 울리아나, 최세라 크리스티나, 최재령 스티븐, 최티모, Dong 달레이, 최희선 글라라, 캐티, 베로니카 가정, 패트릭, 미셀, Pierce 영미 안나, 한귀병 토마스, 한용순 세실리아, 한경민 엘리자벳, 김대현, 한승진 에밀리오, 정려은, 박용민 안드레아, 강옥경 헬레나, 한병우 루시아, 한성은 모니카, 한옥경 글로리아, 한유스티노, 홍석천 마태오, 한용우 마르티노, 윤정애 막달레나, 황원균 알렉산더, 황영문 줄리아, 황지원 크리스티나.

(故)강인순, (故)김영순 안드레아, (故)김인섭, (故)김현희 안나, (故)남상임 로사, (故)민명우 미카엘, (故)박경민 프란치스코, (故)박원희 모니카, (故)서용목, (故)서임순 마리아, (故)송지식 토마스, (故)양덕겸 수산나, (故)유은형 안드레아, (故)이 세레나, (故)이영복 펠릭스, (故)이재우 시몬, (故)이종석 바오로, (故)이형진 리디아, (故)조명호 바오로, (故)최보희 로사리아, (故)최선호 마리아, (故)차서문 헬레나, (故)최환용 바오로, (故)황복성 루카, (故)황중렬.



제대 봉헌초 신청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하상 문화원 이사회의**

- 일시 : 1월 23일(일) 오후 2시 (비대면)

**2** **Church in Latin America를 위한 2차 헌금**

- 이번 주일(1월 23일)은 Church in Latin America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텃밭 가꾸기 세미나 취소**

- 1월 23일로 예정된 세미나가 코로나 확산세로 취소되었습니다.

**4** **꾸르실료 1월 신년 울뜨레야**

- 일시 : 1월 28일(금) 오후 8시
- 비대면(zoom)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5** **요한회 월례회의**

- 일시 : 1월 30일(일) 오전 11:40 (B-1,2)

**6**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설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2월 1일(화) 오후 7:30
-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며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 형제, 친척, 친지들을 기억하며 위령미사를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제대 초 봉헌 감사드립니다.**

- 제대 초 봉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명단은 본당 홈페이지 주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8** **성탄 제대 꽃 봉헌 감사드립니다.**

- 성탄 제대 꽃 봉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명단은 본당 홈페이지 주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9** **2022년도 교무금 카드 발송**

- 2021년도 납부액과 2022년도 교무금 카드를 각 가정으로 발송했습니다. 우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꼭 알려 주세요.

**10** **주일학교 개학 안내**

- 주일학교는 예정대로 23일에 개학합니다. 하지만 코비드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비대면 수업 기간 : 1월 23일부터 2월까지
- 비대면 수업은 zoom이나 google meet으로 진행
- 수업 시간 : 주일학교 미사 시간을 고려하여 **주일 12~1시에 진행**

**11** **본당 사무실 휴무 안내**

- **매주 월요일**은 사무실 휴무일입니다. 본당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본당을 우리 집처럼 사용해 주세요.

**DIOCESE OF ARLINGTON**  
1974-2024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알링턴 교구는 2024년 교구 설정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며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영적, 지적 쇄신을 향하여 3년 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Year One (2021.11.21 시작)**

**“Remember”** :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구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jubileehome/>

**날씨에 관한 본당(알링턴 교구) 지침**

1. 질병이나 약천후(홍수, 허리케인, 폭설)로 인하여 미사 참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미사참례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교회는 대송(공소예절, 기도, 성서 읽기, 선행)을 바칠 것을 권고한다. ([교구 웹사이트 참조](#))
2. 우리 본당은 약천후와 관련해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지침을 따르며, 이에 따라 건물 사용 및 행사(활동)가 취소된다. ([www.fcps.edu 참조](#))
3. 본당의 미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거행되며 약천후로 인해 미사참례 의무는 없지만 부득이 미사참례를 할 경우에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4. 약천후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날은 굽이 높은 신발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은 절대로 신지 않는다.

**코로나19 본당 수칙**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DC에서는 오미크론에 천 마스크나 멘탈용 마스크는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KF 94**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당 미사 참례와 모임시에 **KF 94**를 써주시고, 평일 미사에는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세요.

1. 미사 참석자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2. 성당에 들어갈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3. 평일미사 때는 **표시된 좌석**에 앉아 주세요.
4. **회합을 할 때에 마스크를 꼭 쓰고** 합니다.
5.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

**성서를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성서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내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내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내 모든 교우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1월 16일(연중 제2주일)**

주일헌금	\$ 4,317.00
교무금	\$ 8,420.00
교무금(신용카드)	\$ 3,150.00
2차 헌금	\$ 2,486.00
온라인 봉헌	\$ 4,070.00
<b>합계</b>	<b>\$ 22,443.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1월 27일(목) 오후 5:00~6:00  
1월 28일(금) 저녁 8:00~9:00  
1월 30일(일) 오전 6:00~7:00

1. 신부님 주일 강론
2. 성정 바오로 성당 2021년
3. 특강 : **윤원진 비안네 신부**  
“위대한 성인들”(25)  
- 에루살렘 치릴로, 알렉산드리아 치릴로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월, 목, 토	• 7:30 PM	
• 6:00 AM	• 7:30 PM	• 11:00 AM